

K-기획전시(Special Exhibition):

정선아리랑박물관 <황장목과 정선 뗏꾼>

Hwangjangmok and the Raftsmen of Jeongseon, Jeongseon Arirang Museum

최주원*

정선은 예로부터 척박한 산세 속에서도 강인하게 자라나는 소나무의 주요 산지로 알려져 왔다. 특히 그중에서도 줄기 중심부가 황금빛을 띠는 황장목(黃腸木)은 수령 150년 이상에 달해야 제재가 가능할 만큼 귀한 목재로, 뒤뜰림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 조선시대 궁궐이나 종묘와 같은 국가적 건축물의 자재로 사용되었다. 경복궁 중건을 비롯한 중대한 공역에서 황장목은 단순한 건축 자재를 넘어, 국가의 위엄과 지속성을 상징하는 재료였다.

황장목의 산지는 대부분 강원도 산악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이를 수도 한양까지 운송하기 위해 ‘골안떼’라 불린 남한강 상류 수운길을 따라 목재 운반 전문 인력인 ‘골안뗏꾼’들이 등장하였다. 농경이 어려운 산간 지역에서 살아가던 이들은 험준한 물길을 따라 정선 아우라지에서 영월을 거쳐 한양 마포나루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걸고 황장목을 운반하였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중앙의 정치·문화적 중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이 글은 정선아리랑박물관의 특별기획전 <황장목과 정선 뗏꾼>을 중심으로, 강원도 산골의 황장목이 베어져 한양의 궁궐 기둥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노동과 경제가 맺어온 유기적 관계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정선 사람들의 생태적 지혜와 공동체 문화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구비문학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jw10a@naver.com

1. 전시의 개요



〈사진 1〉 ‘황장목과 정선 뗏꾼’ 포스터
출처: 정선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박물관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특별기획전 ‘황장목과 정선 뗏꾼’을 개최했다. 조선시대 최고의 목재인 황장목(黃腸木), 그리고 황장목을 서울까지 운송했던 정선 뗏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전시이다.

해당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며, 전시의 시작인 1부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한 소나무’라는 제목으로 황장목의 생태적 특성과 함께 건축, 음식, 관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된 문화사적 중요성을 다룬다. 또한 ‘금강송’이 아닌 ‘황장목’으로 불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제2부 ‘강원도의 생계를 책임진 황장목’에서는 국가의 엄격한 산림 보호 정책 속에서도 생계가 어려웠던 강원도 백성들에게 예외적으로 벌목이 허용되었

던 역사적 사실과 그 절차를 조명하였다.

제3부 ‘정선 뗏꾼의 골안떼’에서는 험난한 물길을 따라 목숨을 걸고 뗏목을 운송했던 뗏꾼의 여정과 큰돈을 벌었던 ‘떼돈’의 유래를 뗏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4부 ‘뗏꾼의 과거와 현재’에서는 서울에 도착한 목재가 창출했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아우라지 뗏목축제’ 등을 통해 현대적으로 계승되는 뗏목 문화를 보여준다.

해당 전시에는 벌목 도구 모형, 전국의 ‘황장금표(黃腸禁標)’ 및 ‘봉산표(封山標)’ 사진 자료, 1939년 정선 목재상들이 뗏목 운항의 안전을 위해 강의 암반을 깨는 공사를 했다는 신문 기사 등 귀중한 사료가 공개됐다. 또한, 관람객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뗏꾼의 목소리 증언 청취, 골안떼 모형, 뗏꾼의 여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된다.

2. 전시의 구성

제1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한 소나무”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소나무, 그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황장목(黃腸木)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강인하게 자라며 토질을 개선하는 이로온 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 문화의 핵심 목재였다. 특히 줄기 중심부의 심재(心材)가 누런빛을 띠는 황장목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건조가 쉽고 뒤틀림이 적으며, 송진을 적절히 머금어 잘 썩지 않는 특성 덕분에 조선시대 경복궁 중건과 같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건축 사업에 사용되었다.

전시에서는 일본인 산림학자 우에키 호미키가 분류한 우리나라 소나무의 여섯 가지 유형(동북형, 금강형, 중남부평지형, 위봉형, 안강형, 중남부고지형)을 사진과 그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예를 들어, 줄기가 곧고 지하고가 높아 최상급 건축재로 쓰인 ‘금강형’ 소나무를 통해 황장목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승례문 복원 당시 ‘금강송’이 주목받았던 사례를 통해, 이는 일제강점기 학자가 붙인 이름이므로 우리 고유의 명칭인 ‘황장목’으로 바로잡아 불러야 할 당위성을 설명한다.

또한, 소나무는 단순히 사용되는 소모성 자원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유물을 통해 보여준다. 흥년에는 껍질 안쪽의 하얀 내피를 벗겨내 쌀과 섞어 ‘송기떡’을 만들어 허기를 달랬고, 봄에는 송홧가루를 모아 ‘송화다식’을 만드는 등 중요한 식재료로 활용했다. 정선에서는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복령을 가루 내어 ‘봉양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식주 전반에 걸쳐 함께했던 소나무의 다채로운 쓰임새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 자체가 ‘황장목 문화’였음을 재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에 황장목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했는지를 ‘황장금산(黃腸禁山)’과 ‘황장봉산(黃腸封山)’ 제도를 통해 설명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근거로, 국가는 전국의 주요 황장목 자생지를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황장금표(黃腸禁標)’나 ‘봉산표(封山標)’를 세워 벌목을 엄격히 금지했다. 강원도 정선을 비롯하여 원주 치악산, 영월 사자산 등지에 남아있는 금표 유적의 사진과 분포도를 통해, 허가 없이 벌목할 경우 사형에 처할 만큼 엄격했던 국가의 산림 보호 정책과 황장목의 높은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부 “강원도의 생계를 책임진 황장목”에서는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강원도 백성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던 황장목 벌목과 운반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룬다. 강원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린 조선 조정은 국가적으로 황장목 벌채를 금지하면서도, 생계가 어려운 백성들이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만들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붙였던 노동요 ‘목도소리’의 가사와 정선 아우라지 축제에서 재연된 목도 장면 사진 자료를 통해 당시 뗏꾼들의 고된 노동과 공동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제3부 “정선 뗏꾼의 골안떼”에서는 강원도 산골에서 베어진 황장목이 ‘골안떼’라는 뗏목으로 재탄생하여 서울로 향하는 험난하고 극적인 여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골안떼’는 정선 아우라지에서 영월 합수머리에 이르는 동강 물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뗏목과 뗏꾼을 일컫는 말이다. 칩덩굴이나 쇠줄로 나무를 엮는 방식부터, 궁궐 건축에 쓰이는 ‘궁궐떼’처럼 나무의 크기에 따라 나뉘는 뗏목의 종류까지 상세히 설명한다. 보통 150~200그루의 나무를 5개의 ‘동가리’로 엮어 ‘한바닥’을 만드는데, 특히 Y자 모양의 ‘깍장밭이’에 ‘그레’라는 긴 노를 걸어 방향을 조종하는 앞동가리의 독특한 구조를 대형 뗏목 모형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 시절 뗏꾼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떼돈’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큰 수입 때문이었다. 실제 뗏꾼이었던 유봉규 씨의 “서울에 가서 떼를 넘기고 백이십 원을 받았다”라는 증언과 홍원도 님의 “한 번 서울에 다녀오면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벌었다”라는 증언은 목숨을 담보로 한 여정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 나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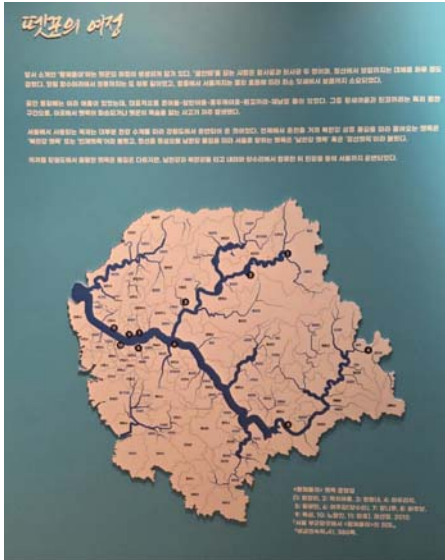
〈사진 6〉 골안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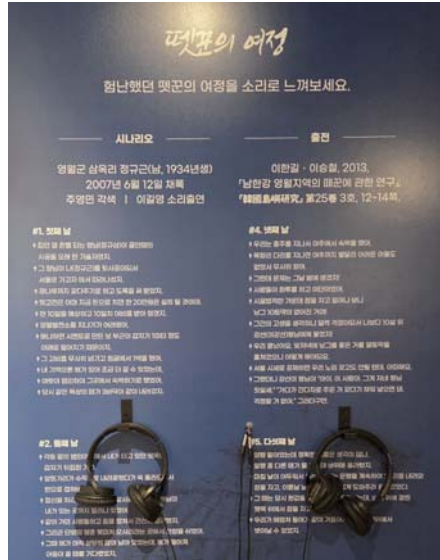
〈사진 7〉 뗏꾼이 된 사연

정선에서 출발한 뗏목이 서울에 도착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은 ‘황새풀이’ 가사와 상세한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특히 황새여울, 된꼬까리와 같이 물살이 거칠고 암초가 많아 사고가 잦았던 위험 구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1939년 『매일신보』의 “매년 다수의 사상자가 생기므로 목재상들이 5백여 원을 모아 강의 암반을 깨는 공사를 계획했다”라는 기사는 당시 뗏길의 위험성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황새여울 된꼬까리 떼 무사히 지냈으니,

만지산 전산옥이야 술상차려 놓게나”라는 정선아리랑 가사 역시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애뜻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실제 뗏꾼의 채록을 각색한 7일간의 여정 음성을 통해 전시는 급류에서의 전복 사고, 도벌 단속을 피하던 밤의 긴장감 등 뗏꾼의 희로애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진 8> 뗏꾼의 여정



<사진 9> 소리로 느끼는 ‘뗏꾼의 여정’

제4부 “뗏꾼의 과거와 현재”에서는 서울에 도착한 뗏목이 조선의 수도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라진 뗏꾼 문화가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육상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한강은 전국의 물산이 모이는 대동맥이었고, 정선에서 출발한 뗏목은 서울의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었다. 서울에 당도한 뗏목은 해체되어 궁궐과 민가의 건축용 재목은 물론, 난방용 땔나무와 숲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기와이기’는 당시 목재가 실제 건축 현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한강 변에는 이러한 목재와 땔나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인 ‘장목전(長木廩)’과 ‘시목전(柴木廩)’이 크게 발달했다. 마포, 용산, 독섬 등지에 자리 잡았던 시전들의 위치와 역할을 옛 지도와 사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정선 뗏꾼들이 운반해 온 목재가 서울의 도시 인프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한다. 또한 뗏목 운송은 벌목꾼, 뗏꾼 외에도 목재를 도성 안까지 나르던 차부(車夫), 집을 짓는 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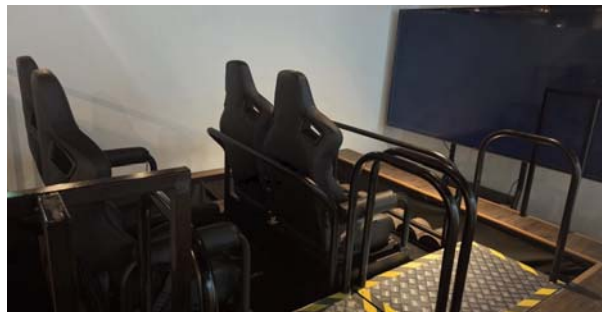
뗏꾼들이 머물렀던 주막 종사자들까지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창출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한 물길 차단, 한국전쟁,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 위주의 주거 문화 변화로 뗏목 운송은 1960년대 이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전시는 이렇게 잊혔던 뗏꾼의 삶과 문화가 ‘아우라지 뗏목축제’와 정선아리랑극 ‘아리 아라리’ 공연을 통해 오늘날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축제와 공연의 생생한 영상을 통해, 뗏꾼 문화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는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전시 마지막에는 정선의 뗏꾼들이 황장목을 뗏목으로 엮어 한강을 따라 서울까지 운송하던 여정을 재현한 VR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직접 뗏꾼이 되어 거센 물살을 헤쳐 나가고, 황새여울과 같은 위험 구간을 통과하는 아슬아슬함을 경험하며 뗏꾼들의 고된 삶과 애환을 생동감 있게 체감할 수 있다.



〈사진 10〉 지역축제와 공연으로 되살아난 뗏꾼



〈사진 11〉 뗏꾼 체험 VR 시뮬레이터

3. 전시의 의의

특별기획전 ‘황장목과 정선 뗏꾼’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 나열에서 더 나아가, 잊혀가는 정선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현재로 불러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황장목이라는 우수한 자연유산과 이를 둘러싼 뗏꾼들의 치열했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전시에서는 정선 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중요성을 전승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번 전시는 정선이라는 지역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전통적인 산림

및 수운(水運) 문화라는 더 큰 틀에서 우리 고유의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장목의 관리부터 벌목, 운송, 그리고 한양에서의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실감 나는 체험형 콘텐츠는 황장목과 정선의 뗏꾼으로 대표되는 정선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